"계율은 수행·윤리회복의 뿌리"

영축불교문화硏 학술대회 신라~조선 율장사상·현대적 의의 조명

오계정신을 지키지 못했던 불교신자 노태우씨와 전두환씨가 비자금 사건과 5·18문제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의 계율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축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성파스님)이 오는 16일 오전11시 통도사 서운암에서 '한국불교 계율사상 연구'란 주제로 여는 이번 학술회의는 원효 자장 지눌 서산스님 등을 통해 신라~조선시대까지의 계율사상을 시대별로 조명하고 계율사상의 현대적 의의와 시대적 사명을 살린다.

미리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계율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발표하는 동국대 목정배교수는 계율을 통해 부처님의 근본정신과 윤리·도덕, 생명·환경의 회복을 주장한다. 목교수는 "성불의 근본이요 불법(佛法)의 수명이며 승단의 기틀인 계율의 현대적 의의를 조명하는 것은 승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수행가풍을 진작함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종범스님

◇목정배교수

◇김상현교수

◇허흥식교수

◇김훈교수

자장 수계통해 전법·교단 통제 / 서산 생활속 수행 '일용청규' 강조

이에앞서 교원대 김상현교수는 '자장정율(慈藏定律)의 내용과 의의'를 통해 자장의 지계(持戒)의식과 수계(授戒)의식, 그리고 교단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김교수는 "자장은 수계를 통한 불교의 홍포와 정율(定律)을 통한 교단의 통제를 동시에 주도했다"면서 "자장은 이와 관련 출가자의 수계를 위해 통도사에 계단(戒壇)을 창설했으며 재가신자에게는 주로 5계로써 수계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중국 북경대 강사인 김훈씨는 '원효의 계율관'이란 논문을 통해 "원효는 대승보살계를 선양하면서도 중생의 해탈을 위한 실천적 견지에서 소승계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조했다"고 주장한다. 또 "원효의 계율사상에서는 참회사상이 중요하다"며 〈대승육정(六情)참회〉를 강조한다. 김씨는 이 책이 중생들이 계상(戒相)에 머무는 병폐를 타파하고 죄업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중생심의 자각을 일으켜 스스로 구도의 길에서 정진할 것을 호소하는 윤리지침서라고 규정짓고 있다.

또 중앙승가대 교수 종범스님은 '서산대사의 계율관'이란 논문을 통해 일상생활속의 수행을 강조하는 서산의 일용청규는 선과 교를 융합한 불교관에서 표출된 구체적인 계율행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문화연구원 허흥식교수는 '지공의 무생계경(無生戒經)과 계율사상'에서 통도사 박물관에 보존중인 지공의 번역서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을 통해 그의 계율사상을 조명한다.

또한 상주산업대 한기문교수는 '고려전기의 수계와 계단'을 통해 고려시대 국왕의 보살계 수계가 덕종~공민왕때까지 66회가 실행됐으며, 신라말~고려전기까지 계단을 설치한 사찰이 23곳에 이른다고 발표한다.

김재경 기자

'한반도 통일과 종교역할' 토론

불교관심 매년 높아져

美종교학회 연차대회

미국종교학회와 불교·기독교학회 연차대회가 지난달 18~22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 컨벤션센터와 메리엇호텔에서 열렸다.

약 7천여명의 불교학자와 종교학자들이 6백50여 분과로 나눠 각종 연구발표와 토론을 벌인 미국종교학회 대회(본지50호 6면 참조)에서 불교분과와 윤리분과 등은 '동아시아의 불교주체화' '불교윤리의 재조명' 등 15개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또 한국종교분과는 '한반도의 분쟁과 화해에 대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강위조교수(와트벅 신학대)가 '한국통일을 위한 50주년'을, 김상일교수(한신대)가 '이원성의 극복과 한국통일'을 발표.

매년 종교학회 연차대회와 함께 열리는 불교·기독교학회 연차총회는 17~18일에 걸쳐 모임을 갖고 '선교와 대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학회는 내년 시카고 대회에 달라이 라마와 베나드딘 추기경도 초청할 예정이다.

불교·기독교학회 국제자문위원으로 두 학술회의에 참석한 진월스님(버클리대 박사과정)은 "미국종교학회 연차대회에 매년 불교관계 패널이 늘어나고 주제가 다양해지는등 불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문화 포럼 "도덕불감증 報應정신 부재탓"

'한국사회의 도덕불감증, 그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한 제1회 정신문화포럼이 정신문화연구원 주최로 지난 7일 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손봉호교수는 △거짓과 불로소득에 대한 불감증 △책임회피주의 △'보응(報應)받지 않는 악'과 '댓가없는 이익' △힘을 갖기 위한 교육 등을 도덕 불감증의 원인들로 진단했다.

손교수는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커진 이유는 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보응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5·18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비자금의 내막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도덕적 냉소주의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학 100년 회고와 전망 전국 국학자대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와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연세대 국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인문과학연구부는 공동으로 지난 8~9일 정신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광복 50년의 국학, 성과와 전망'이란 주제아래 전국국학자대회를 열었다.

8일 서울대 심재룡교수의 사회로 열린 철학종교분과에서는 경희대 허우성교수가 불교사상에 대해 발표했으며 동국대교수 법산스님이 논평했다. 또 예술분과에서는 덕성여대 최성은교수가 불교조각에 대해 발표했으며 동국대 문명대교수가 논평했다.

법주사 천왕문

威光遍照滿乾坤
(위광편조만건곤)
眞界無爲解脫門
(진계무위해탈문)
雲暗日明身內影
(운암일명신내영)
山淸水碧鏡中痕
(산청수벽경중흔)

四大天王威勢雄
(사대천왕위세웅)
護世巡遊處處通
(호세순유처처통)

부처님의 위광이 온 천지에 퍼져 있으니
해탈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진계(眞界)로다
구름이 어둡고 해가 밝은 것은 모두 내 마음의 그림자고
산이 맑고 물이 푸른 것은 거울 속에 남은 흔적이다

사대천왕의 위세가 크기도 하네
이 세상 두루 다니며 통하지 않은 곳이 없도다

해설 우선 이 법주사 천왕문의 주련에는 두가지의 게송이 적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천왕문의 기둥이 모두 6개이므로 앞의 4행짜리 게송과 뒤의 2행 게송이 함께 이어져 있는 것이다. 물론 앞의 것과 뒤의 것이 갖는 내용상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

앞의 4행짜리 게송은 천왕문의 게송으로는 가히 '매력만점'이다. 뒤의 2행 게송이 일방적이다시피 사천왕의 위세를 찬탄한 것과는 달리 매우 광범위한 정서를 토대로 부처님 법의 위대함을 밝히고 있다. 거기다 참다운 수행의 끝자리에서 만나는 깨달음의 실체까지 넌지시 보여주고 있어 이 내용을 읽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한층 적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본래 어디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를 두고 나타나거나 존재하는 상(像)이 아니다. 누구든 자성(自性)의 청정함을 깨우쳐 알면 곧 바로 '부처의 자리'라는 성불의 세계로 드는 것이다.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도 언제든 극락의 불국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탈문도 따로 없고 모든 세상이 참다운 모습으로 갖춰진 곳, 곧 진계(眞界)인 것이다. 이 도리를 알면 구름이 일고 해가 뜨고지는 일들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서 지어지는 그림자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로 다스리면 곧 성불의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게송은 모든 것을 거울속의 흔적처럼 여기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닦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세상은 내마음의 그림자' 설법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요

문 세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 제가 공부를 해나가다가 홀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처처의 중생이 다 부처인데 그들이 여래장은 모르고 오색무지개 환상에 끌려 사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요.

둘째, 이웃 사람에게 포교를 하고 싶은데 좀처럼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개중엔 말도 못꺼내게 하는 고집쟁이도 있습니다. 그들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능엄경에 보면 '말법시대가 오면 고기먹고 할 짓 다 하면서도 도를 깨쳤노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도 술마시고 매운탕도 먹습니다만 이러고도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합니다.

〈이석주·춘천시 우두동〉

답 공부를 한다고 하면 첫째로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야 하고 둘째로 내 육신 속의 중생들을 몽땅 제도해서 조복을 받아야 하고 셋째로 이 모습도 부처님 모습같아야 하지요.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찰나에 바뀌고 찰나로 나투는데 어느 것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것이냐. 내 아닌게 하나도 없고 내 도량 아닌 곳이 하나도 없다. 곤충까지도 나 아닌게 없다'고 했을 때 알아듣기야 알아 듣겠지요. 그러나 참뜻을 모른단 말씀입니다. 왜냐? 천차만별의 내 속의 중생들을 제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대로 일 수 밖에요.

지식이 많고 세상 돌아가는게 그렇게 되어있구나 하고 알더라도 다리병신, 귀머거리, 장님을 못 면하죠. 그래서 오신통을 한다해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신통까지도 조복을 받아야 천백억화신으로 나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홀연히 깨우친게 아닌가. 이런걸 열반경지라 하는구나 하고 알았다해도 그건 그냥 물컵을 보고 물이 담겨있구나 하며 아는 정도이지요. 제대로 알려면 그 물을 나도 먹고 목마른 사람에게 먹일 수도 있어야 도라고 이름할 수 있지요. '도'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것을 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온 구멍에다 다시 놓으세요. 듣는 것도 내가 들은게 아니고 안 것도 내가 안게 아니다. 다 거기서 안 것이고 들은 것이다. 이렇게 '나'를 쑥 빼버리세요. 그래야 참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련히 털어놓고 진실한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해 나가야 공덕도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 쑥 빠져야 공생도 되고 공식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며 사는 게 부처님 법입니다.

덥다 춥다, 밉다 곱다, 잘산다 못산다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연출가의 지시를 따라 연기하는 탤런트일 뿐이다 그렇게 믿고 가세요.

질문을 세가지나 하셨는데 너무 많아요. 자꾸만 뭘 생각하고 알려하고 하기 전에 좀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그냥 밀고 가세요.

한국불교가 왜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부처님 마음, 부처님 법, 부처님의 행을 믿고 둘 아니게 따르면 아무 걱정이 없을텐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하고 잔뜩 벌려 놓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끄러울 수 밖에요. 기독교는 절대 신이라는 타력종교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로 뭉쳐 놓았어요. 그러니 깨우치진 못하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불교공부 하시는 분들 부처님의 마음·법·행을 나와 둘 아니게 믿고 따르면 될텐데 이 선사 저 선사 선사타령하고 이런 부처 저런 부처, 이런 경전 저런 경전 따라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수만명이 깨우쳤다 해도 부처님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질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지꾸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이 몸 속에 잔뜩 들어있는 생명들과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게 더불어 살고 있는데도 그 아만, 그 아상을 놓지 못하니 무슨 공부가 되겠느냐 해서 입니다.

부처님 마음 내기에 따라 아미타불도 되고 아촉불도 되고 관세음보살도 되고 때로는 지장보살, 약사여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따로따로 찾겠습니까?

그냥 부처님 마음에다가, 부처님 법에다가, 부처님 행에다가 코드를 콱 꽂아놓고 '한마음 한몸이다' 믿고 따라 가세요. 부처님과 내 주인공과는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스위치만 켜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다보면 불 들어올 때가 있을 것이고, 불 들어오면 또 불켜졌노라 하지 말고 그것도 법이니 다 주인공 몫이다 하고 놓고 나가세요. 그래서 공생·공체·공심·공용·공식이 되면 그냥 그대로 둘아니게 나툴 수 있게 됩니다.

매운탕 먹고 술 마시는 얘기는 그간에도 본란을 통해 몇차례 대답을 했었으니까 생략합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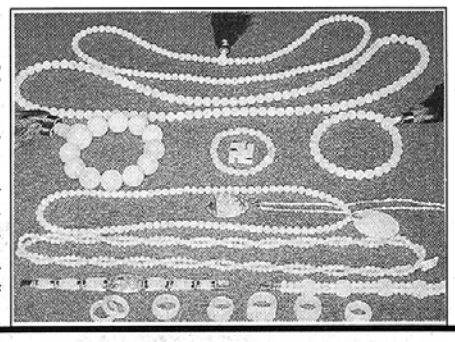
불교전문교육기관
실상사 화엄학림 제2기 학인 모집 안내

실상사 화엄학림은 수행과 연구, 토론을 일체화하는 수학풍토를 바탕으로 화엄경이 제시하는 불교적 세계관을 연구하여 승단과 사회의 지도자로서 전문역량을 갖춘 수행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종헌 제64조, 교육법 제78조에 의하여 설립한 불교계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1. 모집인원: 10명 내외
2. 응시자격: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였거나 (예정자 포함) 동등한 자격을 구비한 조계종 비구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4. 서류제출: 본 학림 소정 응시원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승가학력)
5. 모집기간: 불기 2539(1995)년 12월 20일부터(음력 10월 28일) 불기 2540(1996)년 4월 20일까지(음력 3월 3일) (지원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전화문의와 방문을 요망)
6. 전형일자: 불기 2540(1996)년 4월 30일(음력 3월 13일) 오후 1시 실상사
7. 합격자발표: 개별 통보
8. 개 강: 불기 2540년 5월 31일(음력 4월 15일, 하안거 결제일)
9. 교육기간: 2년
10. 문 의: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실상사 전화 0671-34-3860(화엄학림) 34-3031(실상사 사무실) 34-3757(실상사 주지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然觀

춘천백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유
머리는 맑아지며 의식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禪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氣
* 氣방석 등 생활용품 다양
* 眞玉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 심장질환자 92%,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6.3%, 고혈압 77.8%, 관절염 61%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연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옥반지 84% 옥목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한국일보 반지 84% 목걸이 88% 치료효과 세계서 유일하게 채용 — 21C 자연치유 감응 감원白玉 두통·불면에 「효험」
한국일보 「春川産 白玉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뽀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吳是空 合掌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국반판(10.5cm×14.8cm)256p·고급비닐커버
※ 법보시 하실 사암 환영합니다
정가 1,800원

감로출판사가 새롭게 펴낸
경건 씨리즈
·금강반야바라밀경 2000원
·금강경(독송용) 2500원
·천수·관음경 2500원
·천수·금강경 3000원
·불설 아미타경 1800원
·관세음보살 보문품 1800원
·금강·아미타·팔양경 3500원
·천수·반야·고왕경 1800원
·천지팔양신주경 1800원
·지장보살 예찬문 1800원
·부모은중경 1800원

우리말 지장경
석일화 편저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법보시가격/4,000원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광고국 02-737-0692 ·팩스 02-737-0697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55-0020